

보도자료

2012년 11월 2일(금) 10시 45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김정렬 과장(☎750-2730)
인터넷정책과 양기성 사무관(☎750-2731) yangkinice@kcc.go.kr

방통위-앱센터운동본부-구글,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력

- 창업보육센터 (Startup Incubator) 구축 양해각서 체결
- 창업보육센터 구축, 국내·외 전문가 네트워킹 제공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: 이계철), (사)앱센터운동본부(이사장: 김진형 KAIST 교수)와 구글코리아(대표: 염동훈)는 체계적인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12년 11월 2일(금)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구축과 국내·외 전문가 네트워킹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.

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코리아는 2012년 2월부터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서비스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K-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를 추진해 왔으며, (사)앱센터운동본부는 2009년부터 개발자 네트워크인 '앱센터'를 전국에 설립·운영 (약 200여개)하여 국내 모바일·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.

양해각서 주요내용은 ▲인터넷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보육을 위한 지원 (멘토링, 초기 창업자금 등) ▲인터넷 스타트업 창업보육

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▲인터넷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 및 해외 현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.

이번 양해각서를 통해, 「글로벌 K-스타트업」에 이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약 3개월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기술, 비즈니스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 준비를 하고 초기 창업자금 (Seed Money)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또한, 실리콘밸리에서 해외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현지 법률, 경영, 기술 전문가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해외현지 창업 준비도 도울 예정이다.

방통위 박재문 국장은 “ 「글로벌 K-스타트업 프로그램」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, 이번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인 창업보육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”고 강조하였다. 또한, “세 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.”고 밝혔다.

구글코리아 염동훈 대표는 "올해 초 방통위와 시작한 글로벌 K-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'창업보육센터' 구축을 통해 창업자 발굴부터 보육, 글로벌 진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우수 개발인력들의 창업의지를 북돋우고 싶다"고 말하며, "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는데 구글이 장기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"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앱센터운동본부 김진형 이사장은 "그동안 구축해 온 국내 및 해외의 인적네트워크를 잘 연결시켜 국내 스타트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."고 언급하였다.

한편, 이번 양해각서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, (사)앱센터운동본부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끝.